

# 가족이란?

문득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형제는 가족 범주에 들어갈까요? 작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실태조사'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20%,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현연과는 별개로,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3.3%에 이르러 2인 이상 가족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동성부부 이루어진 가족도 생겨났습니다. 동성이 결혼하면 자녀도 낳을 수 없고, 가족의 근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미국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강한 미국이지만, 비성경적인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는 더 이상 사회 관심사에 끼지도 못하고, 한부모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과서에는 남자가 함께 나오는 부모 모습을 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득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형제는 가족 범주에 들어갈까요? 작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 실태조사'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20%, 배우자의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응답이 5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가족을 동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영양과 위생상황의 개선으로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자녀를 적게 갖다보니 노령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드 피시먼의 '회색소크'에 의하면, 현 세상에서는 한 시간마다 세계 평균수명이 11~15분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예상수명은 5시간씩 늘어나는 셈이지요. 반면 아이는 적게 낳아 노인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등 각종 전쟁 후 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되면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페터 드러커는 인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령화는 과거 로마시대 이후 처음 맞는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로마인의 기대수명은 25년이었으며, 1900년까지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지만, 위험한 유년기를 넘긴 사람도 45세 이상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64세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2006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를 독일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령자를 정부가 보살피지만, 유교문화권에서는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유교적 전통은 평균수명이 겨우 35세일 때 잘 지켜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효도하는 자식들의 부담이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평균수명 83세가 넘는 지금,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않은 실정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는 '격차사회', '네트워크 난민', '무연사회' 등의 특집 다큐멘터리를 연이어 쏟아내며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주노인, 망주(妄走)노인, 고족(孤族), 코슈족(孤舟族) 등 사회문제화된 노인을 가리키는 표현들도 세로 생겨났습니다.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본이지만, 7~80대 빈부격차는 매우 커서 우리나라 평균보다 심합니다. 한편은 생활보호종지로 끊어죽은 사람의 일기 내용이 알려졌는데, '주먹밥 하나를 먹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어서 일본열도가 흥겨워 빠지기도 했습니다.

동양 문화는 공동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정이 튼튼하지 못할 경우 더 심한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를 만들면 된다면, 끈끈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디 그리 쉽지요.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사회는 친구와 만남이 거의 없는 비율이 5~10%에 불과한 반면, 일본(34%)과 한국(22%)은 매우 높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남자의 40%가 절친한 친구가 없고, 25%는 이웃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 후 시간은 남초나 는데,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매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 가운데 노인이 1/3을, 특히 남자가 7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지산 주변 삼림지대는 '자살숲'이라 는 별명까지 붙어있다 합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한 중국도 가족문제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지 33년. 이 정책으로 약 4억 명의 정도의 인구증가억제 효과를 봤지만, 앞으로는 관련 사회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황제라 불리는 자녀 한 명당 부모 둘, 조부모 넷의 1-2-4 구조가 고령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각 세대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자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은 총 6명이 되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09년에 이미 1억 6,7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세계의 1/4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때 일부 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일본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 재정이 아직 넉넉하지 못한 중국 정부는 고령자 부양을 가정에게 넘기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 생 활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자녀가 최소한 2주일에 한번 방문하지 않으면, 징 고를 받고 그대로 가지 않으면 7달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60대의 부자 린씨 부부는 매달 최소한 두 번 찾아오는 자식에게는 1,000위안을 추가로 하고, 손자를 데리고 오면 보너스까지 준 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출처: 중국 인터넷 신문 사이트인 <상하이데일리>). 사회주의 국가도 돈과 법 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는 1.23명 으로, 세계 222개국 중 217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후 준비는 최하 수준입니다. 인구의 15%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매년 5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은퇴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370만 명의 베이비부머 가구주 중 최소한의 노후자금(3억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4.3%에 불과하 다는 연구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부양을 의무로 여기지도 않으니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업에 나서 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자영업자가 늘는 진풍경이 생겨 납니다. 창업할 여력도 없는 은퇴자들은 새 일터를 찾고 말입니다. 최근 통 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고연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7%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최고였습니다.

현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 은퇴하는 2018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2%대 이하 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는 분명 극복해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은 작년 11월 '비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이란 논문에서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 책 연구소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를 무시하는 차방을 공공연하게 내놓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월드뷰는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2월까지 강력히 변화하는 한국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한국의 건강한국문화와 사회를 일깨우는데 있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고민하려 합니다. 특히, 월드뷰에 실리는 가족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지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이파하며 파괴되어야 하는 가족공동체를 살리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

김승욱 (별명: 중앙대 교수)

